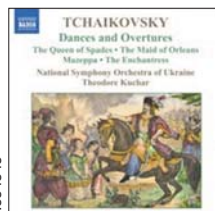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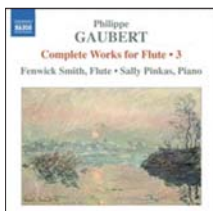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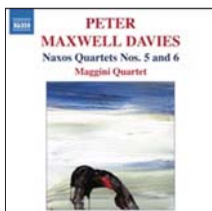
NAXOS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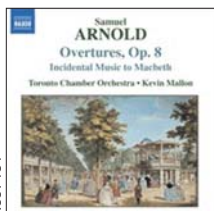
TCHAIKOVSKY:
DANCES AND OVERTURES
Ukrain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Theodore Kuchar, condu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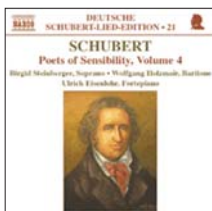
GAUBERT:
COMPLETE WORKS FOR
FLUTE VOL.3
Fenwick Smith, flute
Sally Pinkas, piano



MAXWELL DAVIES:
NAXOS QUARTETS
NOS.5 & 6
Maggini String Quart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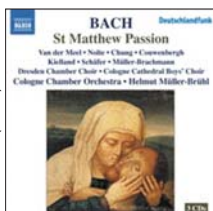
ARNOLD:
OVERTURES, OP.8
INCIDENTAL MUSIC TO MACBETH
Toronto Camerata
Kevin Mallon, condu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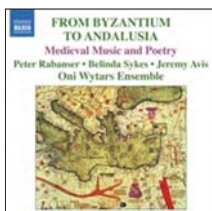
SCHUBERT:
POETS OF SENSIBILITY VOL.4
Ulrich Eisenlohr, fortepiano
Wolfgang Holzmair, bar
Birgid Steinberger, s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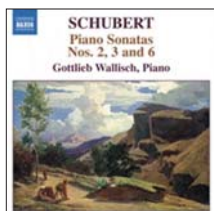
HAYDN:
DIE JAHRESZEITEN (THE SEASONS)
Sibylla Rubens, sop
Andreas Karasiak, te
Stephan MacLeod, bass
Leipzig Chamber Orchestra
Morten Schultdt-Jensen, c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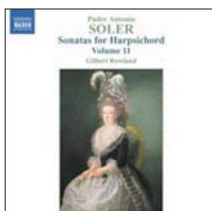
J.S. BACH:
ST MATTHEW PASSION
Nico van der Meel, 복음사가
Raimund Nolte, 예수
정록기, bass
Dresden Chamber Choir
Cologne Chamber Orchestra
Helmut Muller-Bruhl, cond



**FROM BYZANTIUM
TO ANDALUSIA
(MEDIEVAL MUSIC AND
POETRY)**
Oni Wytars Ensem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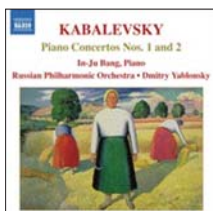
SCHUBERT:
PIANO SONATAS
NOS. 2, 3 & 6
Gottlieb Wallisch, piano



SOLER:
SONATAS FOR
HARPSICHORD VOL.11
Gilbert Rowland,
harpsich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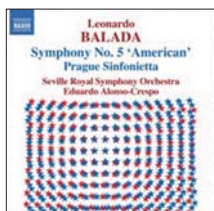
**GUITAR MUSIC OF
ARGENTINA**
Victor Villadangos, gui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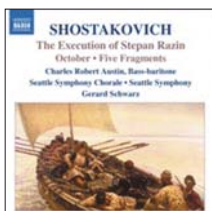
KABALEVSKY:
PIANO CONCERTOS NOS. 1 & 2
방인주, piano
Russian Philharmonic Orchestra
Dmitry Yablonsky, c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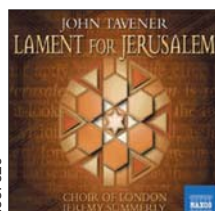
BRAHMS:
SYMPHONIES NOS. 3 & 4
(VERSIONS FOR TWO PIANOS)
Silke-Thora Matthies, piano
Christian Kohn,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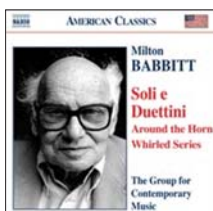
BALADA:
SYMPHONY NO.5
'AMERICAN PRAGUE SINFONIETTA'
Seville Royal Symphony Orchestra
Eduardo Alonso-Crespo, conductor



SHOSTAKOVICH:
THE EXECUTION OF STEPAN RAZIN
OCTOBER, FIVE FRAGMENTS
Seattle Symphony Orchestra
Gerard Schwarz, condu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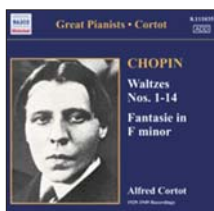
TAVENER:
LAMENT FOR JERUSALEM
Angharad Gruffydd Jones, sop
Peter Crawford, counter-te
Choir of London
Choir of London Orchestra
Jeremy Summerly, condu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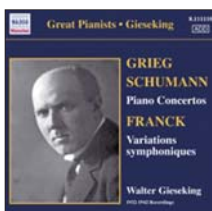
BABBITT:
SOLI E DUETTINI,
AROUND THE HORN ETC.
The Group for
Contemporary Music



WAGNER:
DAS RHEINGOLD
Wolfgang Probst, 보탄
Robert Kunzli, 로게
Esa Ruuttunen, 알베리히
Stuttgart State Opera Orchestra
Lothar Zagrosek, cond



CHOPIN:
WALTZES NOS. 1-14
(1929-1949 RECORDINGS)
Alfred Cortot, piano



GRIEG/SCHUMANN/FRANCK:
PIANO CONCERTOS/VARIATIONS SYMPHONIQUE
Walter Gieseking, piano
Karl Bohm, conductor
Hans Rosbaud, conductor
Dresden State Orchestra...etc.

www.aulosmusic.co.kr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March 2006



낙소스(Naxos)

- Jan., Feb., Mar. -

정기샘플러 발매

낙소스 명연주자 탐방
마기니 사중주단

Artist of Kirkelig
스칸디나비아의 노래하는 여류시인 카리 브렘네스

Newly Imported Disc
위그모어홀 라이브 시리즈

Cover Story
진현주

한국 현대음악의 희망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www.aulosmusic.co.kr

한국 현대 음악의 희망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진현주

바이올린 독주나 여러 형태의 앙상블을 통해 현대음악을 소개해온 한국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진현주. 그녀가 점점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대음악을 레퍼토리로 해서 독집음반을 내놓았다. 화려한 메이컵과 옷치장을 한 모습으로 독집을 내는 젊은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대개는 자신의 지명도를 급속도로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하면서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는 고전, 낭만주의의 레퍼토리들을 들고 나오는 경향에 비춰보면, 아울로스 미디어를 통해 그녀가 선보인 첫 독집은 약간 의아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음악 칼럼니스트 강은경이 음반의 내지를 통해 언급했듯이 '진현주와 같은 연주자는 새로운 창작의 향수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청중에게는 의미 있는 공급자' 역할을

을 하고 있는 음악가다. 현대음악은 일반 애호가들한테는 많이 소외되어 있지만, 작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많은 작곡가들에게는 여전히 부단한 관심의 대상이고 '진행형'의 음악이다. 그것은 여전히 동화될 수 없는 음악, 이해하기 힘든 음악으로 낙인 찍혀 있지만, 진현주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엘리트 음악가의 취미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적인 친근함과 역사적 동질성을 확보한 평범한 정신적 소산임을 밝히는데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을 지니며 사는 속 깊은 연주가이기도 하다.

진현주는 서울 예고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후 독일에 유학하여 칼스루에와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과 실내악 연주가 과정을 마쳤다. 2000년에 귀국했고 여러 차례 독주회를 열어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금호 아트홀 스페셜 시리즈, 스트링 앤 보우 초청 연주회, 그리고 국내외 여러 음악제에 참가해서 많은 연주를 들려줬다. 특히 그녀와 관련되어 회자되는 것은 통영 국제 음악제의 상주악단으로 조직된 TIMF 앙상블의 창단멤버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이 앙상블과 함께 2004년 다름슈타트 음악제, 2005년 바르샤바 가을 축제에도 참가하여 현지 언론의 격찬을 받았다. 그 외에도 그녀는 송파 교향악단 악장, 마드리 실내악단의 객원 악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숙명여대, 예원학교, 서울 예고, 경기예고,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 등에서는 후진을 양성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그녀가 이번 음반에서 선택한 음악을 간단히 소개한다. 먼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현대음악작곡가인 윤이상님의 '바이올린을 위한 대비'가 연주된다. 1987년에 작곡된 '대비'는 글자 그대로 전체적, 부분적인 '대비'가 특징인 작품이다. 두 개의 곡이 서로 대비를 이루지만, 악곡 내부에서도 서로 대비를 이루는 네 개의 부분들이 나타난다. 중국과 한국의 궁정음악 전통에서 나온 음률을 회고하면서 주요음 내지 중심음 기법에 곡 구성의 단세포까지 기억하는 음양 변증법의 원리가 숨어 있는 특별한 작품이다. 숙명여대 교수인 허방자의 '바이올린을 위한 3장'도 그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했다. 작곡가는 공허와 혼돈, 소음 속에서 욕망의 세상 바퀴로 구르는 사회의 나날...자신도 모르게 지나쳐버리기 쉬운 자연계를 접하며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감동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쿠오드라베트'는 김성기의 작품이다. '쿠오드라베트'는 라틴어로 '마음대로'란 뜻인데, 유머러스한 효과를 보기 위해 잘 알려진 여러 선율들을 한데 결합하는 작곡방식이다. 또한 서로 다른 여러 노래 가사들을 한 성악곡 안에 이어 붙여 놓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김성기의 곡은 우리 민요들을 단편 주제로 해서 엮은 작품이다. 김현민의 작품으로는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를 연주했다. 2005년 최신 작품이다. 안단테, 알레그로의 대조적인 성격을 띤 두 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느린 템포의 1악장에서는 선율적인 면이 부각되었고, 빠른 템포의 2악장은 처음 제시된 작은 동기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쾌속으로 진행되는 작품이다. 끝으로 재독 작곡가 진은숙과의 만남을 계기로 작곡을 시작했고 서울대 음대 작곡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신우의 작품 '신의 양-II, 분노'도 진중하게 연주했다. 소프라노, 바이올린, 혼과 피아노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중 두 번째 악장이며, 작곡가가 특별히 진현주를 위해 작곡했다고 한다. 극단적 불협화음의 사용을 억제하고 단순한 선율과 화음을 사용해 텍스트(로마서 1장)에서 받은 인상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한국의 연주자 시리즈 3 바이올리니스트 진현주 발매 음반



AMC2-066

진현주 한국현대바이올린작품집

연주 : 진현주(바이올린)

현대음악의 전도사로 나선 바이올리니스트 진현주. 그녀가 정성껏 연주한 우리시대의, 우리시대에 의한 우리시대를 위한 작품들을 음반에 담았다. 윤이상, 허방자(숙명여대 교수), 김성기(예술종합학교 교수), 김현민(ISCM 한국위원회 이사), 이신우(서울대학교 부교수)의 노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www.naxos.com

Naxos New Releases



J.S.바흐 : 마태 수난곡 BWV244 (3CD)

Nico van der Meel, 복음사가 / Raimund Nolte, 예수 / 정록기, bass / Claudia Couwenbergh, sop / Marianne Beate Kielland, alt / Markus Schafer, te / Hanno Muller-Brachmann, bass / Dresden Chamber Choir / Cologne Cathedral Boys' Choir / Cologne Chamber Orchestra / Helmut Muller-Bruhl, cond

낙소스의 바흐 관현악곡 시리즈로 절충주의 해석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한 뮐러 브뤼엘. 그가 바흐의 가장 위대한 종교합창곡에 도전하였다. 원전연주를 닮은 경쾌한 템포와 단정한 연주 스타일에 다이내믹의 운용폭이 넓은 현대악기 앙상블의 장점을 결합시킨 연주이며, 니코 반 데어 멜의 복음사가를 비롯한 성악진의 고된 연주력 또한 만족스럽다. 유럽 음악계의 기대주인 한국의 베이스 정록기가 참여하였다.

Naxos
8.557617-19(3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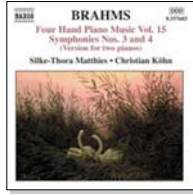


하이든 : 오라토리오 <사계> (2CD)

Sibylla Rubens, sop / Andreas Karasiak, te / Stephan MacLeod, bass/ Gewandhaus Chamber Choir/ Leipzig Chamber Orchestra / Morten Schuldt-Jensen, cond

<천지창조>와 쌍벽을 이루는 하이든의 걸작 오라토리오 <사계>. 세 명의 농부들이 들려주는 농사에 대한 노력, 전원생활의 즐거움, 그리고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들이 작곡가 특유의 명쾌한 선율과 함께 아름답게 이어져 나간다. 바로크/고전 스페셜리스트인 소프라노 시빌라 루벤스를 비롯한 세 솔리스트의 담백한 절창과 라히프치히 음악가들의 단아한 앙상블이 작품의 참 매력을 보여준다.

Naxos
8.557600-01(2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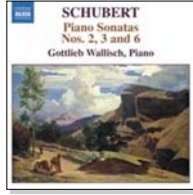


브람스 : 교향곡 3, 4번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

Silke-Thora Matthies, piano / Christian Kohn, piano

브람스는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 실내악, 성악곡 등의 상당수를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편곡해 놓았다. 이번 신보에 수록된 것은 그의 교향곡 3번과 4번. 원곡의 웅대한 스케일과 아름다운 서정성을 피아노의 명징한 울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이미 앞선 14장의 음반을 통해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각광받았던 맥-마티스 듀오의 긴밀한 호흡이 이번 신보에도 변함없이 위력을 드러낸다.

Naxos 8.557685



슈베르트 : 피아노 소나타 2, 3, 6번

Gottlieb Wallisch, piano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다른 장르의 작품들에 비해 과소평가되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초기 낭만 시대의 대표적인 피아노 작품들로 재평가되고 있다. 본 음반에 수록된 초기 소나타들은 베토벤의 영향으로 부터 벗어나 서서히 자신의 색깔을 찾아나간던 시기의 작품들. 199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최연소 결선진출자인 피아니스트 고틀리브 발리슈의 간결한 터치와 작품에 내재된 젊은 기백이 잘 어울린다.

Naxos 8.557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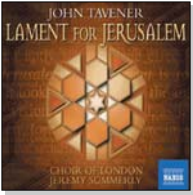


아르헨티나의 기타음악 2집

Victor Villadangos, guitar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현대 작곡가들의 기타 작품들을 다루고 있는 시리즈의 두 번째 음반. 피아졸라를 추모하는 푸홀라의 작품 <탱고연주자의 죽음을 위한 엘레지>, 페리의 <고양이 춤>, 크리올로 왈츠 리듬이 인상적인 모스 카르디니의 <돈나 카르멘> 등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향토음악의 특징적인 리듬과 선율을 살린 개성만점의 작품들이 망라되었다.

Naxos 8.557658



태브너 : 예루살렘을 위한 애가(哀歌)

Angharad Gruffydd Jones, sop / Peter Crawford, counter-te / Choir of London / Choir of London Orchestra / Jeremy Summerly, conductor

영국 작곡가 존 태브너는 페르트, 구레츠키 등과 함께 과거지향적인 음악세계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성악곡 <예루살렘을 위한 애가>는 예루살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세 종교인 크리스트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텍스트에 기초하여 완성한 것으로 작곡가 스스로 신비한 사랑노래라고 표현하였다. 맑은 인성이 어우러지며 빚어내는 몽환적인 신비감이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

Naxos 8.557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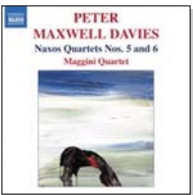


쇼스타코비치 : 스테판 라친의 처형 / 10월, 5개의 관현악 소품

Seattle Symphony Orchestra
Gerard Schwarz, conductor

쇼스타코비치의 특징적인 관현악 작품 셋을 수록하였다. 5개의 소품은 교향곡 4번의 작곡 과정에 만들어진 습작 성격의 작품. 1917년 혁명 50주년 기념작인 스틸넴치는 교향시 <10월>은 작곡가 최만년에 완성된 관현악곡의 하나. 17세기 코사크 영웅을 다룬 <스테판 라친>은 바리톤 독창, 혼성합창을 수반하는 대편성의 작품으로 감성적인 러시아 민요 선율과 강렬한 관현악의 포효가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작품이다.

Naxos 8.557812



맥스웰 데이비스 : 낙소스 현악사중주 5, 6번

Maggini String Quartet

영국의 저명한 작곡가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가 낙소스 레이블의 위촉을 받아 진행 중인 낙소스 현악사중주 시리즈의 세 번째 음반. 발전소의 거대한 기계장치에서 영감을 얻은 5번과 베토벤의 후기 사중주에 대한 작곡가의 진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완성된 6번을 수록하였다. 영국 실내악계의 기대주이자 본월리엄스의 현악사중주로 그라모폰 상을 수상했던 마기니 사중주단이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398



비잔티움에서 안달루시아까지 (중세음악과 시)

Oni Wytars Ensemble

본 음반에는 13-4세기 지중해 주위를 장악하고 있던 세가지 문화권인 유대인, 그리스인, 무슬림의 음악들을 골고루 수록되었다. 당시 스페인 안달루시아를 지배하던 이슬람 왕국, 유럽 동쪽 끝 비잔틴의 크리스찬 제국, 레바논 일대의 동방교회 음악, 세파르디(스페인계 유대인) 전통음악 등이 오히려 위타스 앙상블의 토속적인 연주를 통해 걸출하게 펼쳐진다.

Naxos 8.557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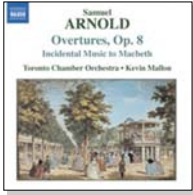


고베르 : 플루트를 위한 작품 3집

Fenwick Smith, flute / Sally Pinkas, piano

필립 고베르는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저명한 음악가로, 프랑크, 라벨, 드뷔시 등의 선배 작곡가들의 혁신적인 작업을 자신의 음악 속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본 신보에서 가장 귀담아 들어볼 작품은 두 편의 로망스이다. 작곡가의 진한 서정성이 한껏 발휘된 작품으로 플루트의 청아한 매력이 귀를 즐겁게 한다. 또한 모차르트의 미술피리를 비롯한 여러 선율들의 플루트 편곡작품 또한 흥미롭다.

Naxos 8.557307



Naxos 8.557484

사무엘 아놀드 : 서곡 Op.8, 극부수음악 <맥베스>

Toronto Camerata / Kevin Mallon, conductor

사무엘 아놀드(1740-1802)는 18세기 런던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작곡가의 한 사람이었다. 본 음반은 그의 남아있는 관현악 작품 전체를 수록한 것으로 세계최초녹음에 해당한다. 18세기 초기 교향곡의 아취가 진하게 배어나오는 여섯 편의 서곡(신포니아)과 더불어 걸려풀한 극부수음악 <맥베스>, 오페라 <폴리>의 경쾌한 서곡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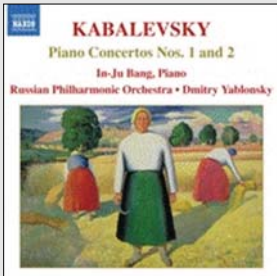


Naxos 8.557640

솔레르 :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11집

Gilbert Rowland, harpsichord

스페인의 스카를라티로 일컬어지는 안토니오 솔레르는 수도원에서의 엄격한 수도생활 와중에도 뛰어난 키보드 소나타를 150곡 이상 작곡했던 독특한 경력의 작곡가였다. 앞서 발매된 10장의 소나타 작품집을 통해 현존 최고의 솔레르 스페셜리스트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스코틀랜드의 중견 하프시코드 연주자 길버트 로우랜드는 경쾌한 터치와 안정된 연주력으로 작곡가의 생기발랄한 매력을 한껏 드러내었다.



Naxos 8.557683

카발레프스키 : 피아노 협주곡 1, 2번

방인주, piano

Russian Philharmonic Orchestra

Dmitry Yablonsky, cond

카발레프스키는 쇼스타코비치와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던 소비에트 작곡가의 한 사람이자, 뛰어난 기교를 자랑했던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였다. 그의 피아노 협주곡은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의 영향이 물씬 배어나오는 선율적인 작품들로, 20세기 작품답지 않은 친근함이 인상적이다. 2004년 14세의 나이로 스페인의 푸이세르다 국제 콩쿠르를 석권했던 우리의 신예 피아니스트 방인주의 조숙한 연주력이 감탄을 자아내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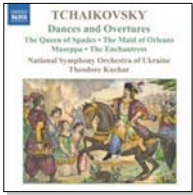


Naxos 8.557569

슈베르트 : Poets of Sensibility Vol.4

Ulrich Eisenlohr, fortepiano / Wolfgang Holzmair, bar / Birgid Steinberger, sop

세계 최정상급 바리톤 볼프강 홀츠май어의 두 번째 낙소스 음반. 빈 국립 오페라단의 멤버이자 빈을 무대로 리트 가수로도 맹활약중인 소프라노 비르기트 슈타인베르거와 함께 독일 감정과다주의(empfindsamkeit) 조류의 시들에 곡을 붙인 가곡 24곡을 노래하였다. 낙소스 슈베르트 가곡 시리즈의 기동인 올리히 아이젠로어가 연주하는 포르테피아노의 담백한 울림이 두 가수의 부드러운 음성과 잘 어울린다.



Naxos 8.554845

차이코프스키 : 오페라 서곡 및 오페라 삽입 춤곡

Ukrain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 Theodore Kuchar, conductor

교향곡과 오페라 양분야 모두에서 성공한 몇 안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인 차이코프스키. 본 음반에는 그의 오페라들에서 발췌한 관현악단편들과 함께 극초기 관현악곡인 <운명>(Fatum)과 <지방관리>(Voyevoda) 서곡 등을 수록하였다. <마제파>의 고파크, <오를리앙의 처녀> 중의 간주곡과 보헤미안 댄스, <실내화> 중의 러시아 댄스와 코사크 댄스, <여자마법사> 중의 전주곡 등 그간 음반으로 만나기 힘들었던 작곡가의 특징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Naxos 8.557749

발라다 : 교향곡 5번 '아메리칸', 프라하 신포니에타

Seville Royal Symphony Orchestra / Eduardo Alonso-Crespo, conductor

개성적인 음악세계로 구미 음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페인의 현존 작곡가 레오나르도 발라다. '9/11을 기억하며'라는 부제의 1악장으로 시작되는 그의 교향곡 5번은 곳곳에 등장하는 미국 특유의 양키 두들 선율들이 <아메리칸>이라는 작품의 표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드보르작에 이어 미국을 바라보는 유럽 작곡가의 또 하나의 교향곡이 완성된 셈이다.



Naxos 8.559259

배빗 : Soli e Duettini, Around the Horn etc.

The Group for Contemporary Music

1982년 현대음악계에 대한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폴리치의 평생공로 특별상을 수상했던 미국 전위음악계의 거물급 작곡가 밀튼 배빗. 본 음반에는 실내악 규모의 기악 작품들을 담았다. 그의 음악적 특징인 투명한 텍스처어와 급박스러운 흐름의 변화와 더불어 각 악기 주자들의 현란한 조절기교를 요구하는 이 작품들을 통해 현대음악계의 굵은 일획을 그었던 이 작곡가의 독특한 음악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Naxos 8.660170-71(2CDs)

바그너 : 라인의 황금 (2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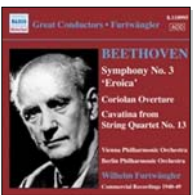
Wolfgang Probst, 보탄 / Motti Kaston, 돈너 / Bernhard Schneider, 프로 / Robert Kunzli, 로게 / Michaela Schuster, 프리카 / Helga Ros Indridadottir, 프레이아 / Mette Ejsing, 에르다 / Esa Ruuttunen, 알베리히 / Eberhard Francesco Lorenz, 미메 / Roland Bracht, 파졸트 / Phillip Ens, 파프너 / Catriona Smith, 보글린데 / Maria Theresa Ullrich, 벨군데 / Margarete Joswig, 프로스힐데 / Stuttgart State Opera Orchestra / Lothar Zagrosek, cond

드디어 낙소스의 <니벨룽의 반지>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본 <라인의 황금>은 2002년 12월 슈투트가르트의 뷔템부르크 극장에서의 실황을 옮긴 것으로, 바로 TDK를 통해 DVD 영상으로 발매되었던 것과 동일한 연주다. 일급 오페라 지휘자인 로타 자그로섹이 지휘봉을 잡았고, 유럽 일선 오페라 무대를 대표하는 현역 바그네리언 가수들의 열창이 연주의 완성도를 높였다.



www.naxos.com

Naxos Historical



Naxos 8.110995

베토벤 : 교향곡 3번 <영웅>, 코리올란 서곡, 카바티나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 베를린 필하모닉 & 빈 필하모닉

1947년에 녹음된 코리올란 서곡은 거장이 남긴 유일한 동곡의 스튜디오 레코딩이고, 영웅 교향곡은 1947년 11월에 녹음된 HMV 레코딩을 복각한 것이다. 1940년에 녹음된 카바티나는 베토벤 현악사중주 13번의 5악장을 관현악으로 편곡하였다.



Naxos 8.111087

안드레스 세고비아 1944년 레코딩

알베니즈, 다울랜드, 하이든, 그라나도스, 퍼셀, 스카를라티, 폰스 외

세고비아는 51세가 되던 해인 1944년 뉴욕에서 중요한 레코딩을 다수 남겼다. 모국작곡가들인 알베니즈, 그라나도스, 타레가의 작품은 물론, 자신이 편곡한 하이든의 작품들, 비제, 스카를라티, 다울랜드, 라모, 퍼셀 등의 바로크 작품들까지 섭렵하였던 그의 학구적인 면모를 이 음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xos 8.111127

에네스쿠, 피제티, 바흐 : 바이올린 소나타

에후디 메뉴인, vn / 헤프지바 메뉴인, pf

메뉴인의 폭넓은 레퍼토리를 실감케하는 음반. 13세 되던 해인 1929년 녹음인 바흐의 소나타에서 자신의 스승이자 루마니아 출신의 거장 에네스쿠와 20세기 중반기의 이탈리아 음악계를 대표하던 작곡가인 피제티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누이 헤프지바의 반주로 녹음하였다. 피제티 소나타는 메뉴인의 유일한 녹음.



Naxos 8.111093

로테 레만 리트 레코딩 (1935-7)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볼프, 베토벤 외

20세기 초 빈 오페라계를 주름잡았던 로테 레만은 리트분야에서도 큰 활약을 펼쳤다. 물레돌리는 그레첸, 아나크레온의 무덤 등의 독일 리트의 대표곡들에서부터 한, 구노, 피제티, 그레차니노프, 민요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레만의 전설적인 음성으로 만나게 된다.



Naxos 8.120841

Hits of the 1920s Vol.2 (1921-1923)

1920년대 미국인들을 열광시켰던 추억의 선율들

Ain't We Got Fun? / April Showers / Barney Google / Hot Lips / I'm Just Wild About Harry / It Ain't Gonna Rain No Mo' / Kitten On The Keys / Margie / Mr Gallagher And Mr Shean / My Man / Palesteen / Second Hand Rose / Swingin' Down The Lane / The OKeh Laughing Record



Naxos 8.120823

George Shearing : Lullaby of Birdland

재즈의 고전

Lullaby of Birdland Bop, Look And Listen / Carnegie Horizons / Cherokee / Consternation / East Of The Sun / Have You Met Miss Jones? / I Only Have Eyes For You / I'll Remember April / In A Chinese Garden / Jumping With Symphony Sid / Life With Feather / Lullaby Of Birdland / Nothing But D. Best



Marco Polo



Naxos 8.554845

요한 슈트라우스 1세 : 작품집 8집

8.225284

크리스티안 폴락/ 슬로박 신포니에타 칠리나

두 아들들의 명성에 가려져 지금은 과소평가받고 있으나,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1820년대부터 1849년 사망할 때까지 빈 사교계의 큰 사랑을 받았던 춤곡 분야의 최고 작곡가로 이름을 날렸다. 본 음반에는 그의 가장 유명한 왈츠인 엘리자베스 왈츠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춤곡들이 수록되었다.



Wigmore Hall Live Series

1901년 개관 이후 세계적인 리사이틀 홀로 확고한 명성을 누리고 있는 런던의 위그모어 홀. 유서 깊은 이 연주회장에서 펼쳐졌던 정상급의 아티스트들의 공연실황이 위그모어홀 라이브 시리즈를 통해 음반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아울로스 미디어가 위그모어홀 라이브 시리즈의 음반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 Wigmore Hall live Series ❖



WHLive0001

베토벤 : 클라리넷 트리오 Op.11 / 멘델스존 : 8중주 Op.20

Nash Ensemble

2005년 10월 Gramophone Editor's Choice

“내쉬앙상블은 영국의 최정상급의 체임버 앙상블이다.” –The Times–

2005년 3월 19일 위그모어 홀에서 열렸던 내쉬앙상블의 결성 40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 영국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이자 여러 우수한 젊은 연주자들의 동용문 역할을 했던 내쉬앙상블의 저력을 베토벤의 화려한 클라리넷 트리오와 멘델스존의 장대한 팔중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HLive0002

베토벤, 볼프, 버터워스, 본 윌리엄스, 브리지: 가곡리사이틀

Sir Thomas Allen, bar / Malcom Martineau, pf

항상 그래왔듯이 알렌은 텍스트의 의미에 부합하는 사운드를 효과적으로 매치시키는 대단히 지적인 리사이틀가수이다.” –The Guardian–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리톤 토마스 알렌. 그가 정통 리트 반주자의 계보의 적자로 평가받는 말콤 마르티누와 더불어 2005년 3월 29일 가졌던 리사이틀 실황이다. 베토벤의 아델라이데, 볼프의 아나크레온의 무덤과 같은 인기 리트 외에도 버트워스와 본 윌리엄스, 브리지와 같은 근현대 작곡가들의 가곡을 능수능란하게 요리해 나간다.



WHLive0004

하이든, 모차르트, 슈트라우스, 볼프, 바일, 코워드 외: 가곡 리사이틀

Dame Felicity Lott, sop / Graham Johnson, pf

“로트의 깨끗한 음색과 무대 위에서의 확고한 자신감은 그녀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슈트라우스 해석가의 한 사람임을 거듭 증명한다.” The Observer–

영국의 국민소프라노와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리트 반주자가 만났다. 2005년 6월 6일의 리사이틀은 이 두 아티스트의 위그모어홀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들은 독일, 영국, 프랑스의 근대가곡,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성악곡, 민요, 카바레송에 이르는 가지각색의 레퍼토리들로 이 무대를 장식하였다.



WHLive0005

헨델, 비발디, JS 바흐 :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외

Pavlo Beznosniuk & Rachel Podger, vn / Academy of Ancient Music

“이 콘서트를 통해 야기된 열정, 흥분, 즐거움의 강도는 분명 특별한 것이었다.” –The Times– 호그우드와의 수많은 명연들을 통해 국내 고음악 애호가들에게도 낯익은 이름인 고음악 아카데미. 이들의 최근 모습을 이 실황음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05년 1월 24일의 실황으로 헨델의 합주협주곡 Op.6-1,10, 비발디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RV524,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RV548,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43을 수록하였다. 국내 애호가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레이첼 포저가 악단의 리더 파블로 베즈노시우크와 함께 솔로를 담당하였다.



WHLive0006

슈베르트: 백조의 노래, 괴테 가곡, 하프너의 노래 외
Peter Schreier, te / Andras Schiff, pf
“슈라이어와 쉬프는 이전의 그 어떤 아티스트들 보다 관객들을 슈베르트 가곡의 세부로 몰입하게 만들었다.” The Independent-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파란만장한 연주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고별콘서트를 가졌었던 슈라이어. 1991년 7월 1일 안드라스 쉬프와 함께했던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는 이 위대한 리트가수의 마지막 뒷모습을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슈라이어가 들려주는 관록의 가창은 물론, 리트 반주자로서도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렸던 쉬프의 안정된 반주도 훌륭하다.



WHLive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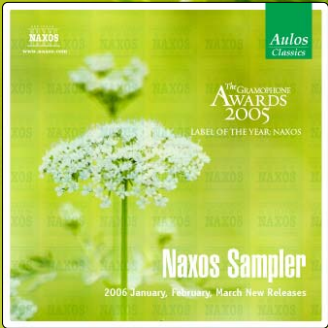
슈만: 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동화 Op.132 /
모셀레스: 환상곡, 변주와 피날레 Op.46 / 브람스: 클라리넷 오중주 Op.115
Nash Ensemble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서정적인 톤의 풍부하고도 다양한 팔레트가 다시 한번 감동을 안겨준다.” - The Guardian-
내쉬 앙상블이 2005년 10월 8일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두 번째 음반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우수한 연주력을 다시 한번 자랑하였다. 슈만의 서정적인 실내악작품인 ‘동화’, 빼어난 매력에도 불구하고 접하기 쉽지 않았던 모셀레스의 환상곡, 브람스 실내악의 최고봉인 클라리넷 오중주를 함께 담았다.



WHLive0008

슈베르트, 말러, 슈트라우스: 가곡 리사이틀
Dame Margaret Price, sop / Geoffrey Parsons, pf
“내가 경험한 가장 긴장감 넘치는 공연의 하나” -The Guardian-
1987년 12월 8일 마가렛 프라이스의 역사적인 위그모어홀 데뷔 리사이틀 실황. 이 콘서트는 프라이스의 무대경력 25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하였다. 1995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정상급 리트 반주자인 제프리 파슨스의 노련한 반주가 프라이스의 드라마틱한 노래를 한결 돋보이게 한다. 말러의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 4곡 외에도 송어, 물레돌리는 그레첸, 내일, 헌정 등의 슈베르트와 슈트라우스의 대표적인 가곡들을 한 자리에 담았다.

‘2006 낙소스(Naxos) 정기 샘플러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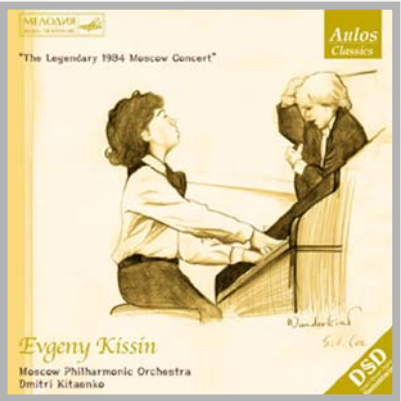
2006
January, February,
March
New Releases

- 1 K. Ordenez: 1st Mov. Allegro piu presto from Sinfonia in A major
- 2 F.J. Haydn: Bass Aria 'Schon eilet froh...' from <Die Jahreszeiten>(The Seasons)
- 3 M. Clementi: 3rd Mov. Allegro molto vivace from Sonata in Eb major Op.41
- 4 Q. Sinesi: Sonidos de aquel dia from Guitar Music of Argentina Vol.2
- 5 W.A. Mozart: 4th Mov. Rondo-Allegro from Eine Kleine Nachtmusik K.525
- 6 P.I. Tchaikovsky: Mazeppa - Gopak from Dances & Overtures
- 7 P. Gaubert - F. Chopin: Prelude No.15 <Rain Drop> from Complete Works for Flute Vol.3
- 8 F.P. Schubert: Die Mainacht D.194 from Poets of Sensibility Vol.4
- 9 J. Brahms: 3rd Mov. Presto giocoso from Symphony No.4 (arrange for 2 pianos)
- 10 H. Harty: In the Slave Market from Fantasy Scenes
- 11 G.F. Handel: Alla Hornpipe from Water Music Suite No.2
- 12 I. Pleyel: 3rd Mov. Rondo Grazioso from String Quartet in Bb major Op.2-5
- 13 S. Arnold: 1st Mov. Allegro from Overture in D major Op.8-2
- 14 Padre A. Soler: Sonata in C major from Sonatas for Harpsichord Vol.11
- 15 J.N. Hummel: Fantasia on 'Non piu andrai' Op.124 from Fantasies
- 16 R. Pelckmans: Slapstick from Music for Clarinet Quartet
- 17 A. Pavlova: The Broadway's Song from Old New York Nostalgia Suite
- 18 Boris Tchaikovsky: 1st Mov. from Concerto for Piano & Orchestra

천재 피아니스트

첫 내한 공연을 환영합니다!

예프게니 키신, 아니 20세기 후반, 세계 음악계를 놀라게 했던 가장 유명한 신동 피아니스트란 퀴즈식의 질문을 던져도 곧바로 같은 답을 얻어낼 것 같다. 그만큼 키신은 20세기 후반을 거쳐 살아온 현재의 음악비평가나 애호가들의 가슴에 아주 특별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자신에게 붙여준 ‘신동’이란 용어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키신은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이다. 그 신동도 세월의 흐름을 타고 21세기를 맞았다. 나이 서른을 갓 넘긴 시점에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이 그와의 인터뷰를 마련했다. 자신의 이름 앞에 늘 따라붙는 ‘신동’이란 말에 신경 쓰이지 않느냐는 슈피겔의 질문에, 키신은 ‘신동’이란 말이 포함하고 있는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꼬집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은 음악가들은 나를 정말 신동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신동이란 화려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지만 예술적으로는 그저 그런 어린 아이를 부르는 특별한 용어다. 나는 그와는 달리 성숙한 한사람의 연주가로 인정받았다. 물론 10살 이전에도 나는 그렇게 인정받았다.” 키신의 대답은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어릴 때 놀라운 재능을 보이면, 사람들은 우선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 즉 어린아이의 ‘모기’에 우선 주목하고 신기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신동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모기의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성숙한 음악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왔고, 우리는 그들을 한때 ‘신동’이었다는 말로 추억하곤 한다. 그러나 키신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를 부모로 1971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키신은 겨우 두 살 때 손가락이 아닌 귀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여섯 살 때는 모스크바의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다니는 그네신 음악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다. 음악학교에 있을 때 그는 유명한 음악 영재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러나 키신은 그 학교의 뛰어난 학생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뛰어난 신동, 즉 천재 중의 천재라는 사실을 곧바로 세상에 알리게 된다. 1984년 3월 27일이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 키신은 드미트리 키타옌코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스크바 음악원 대 연주회장 무대에 등장했고, 12살의 어린 피아니스트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두 곡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하고 말았다. 그 역사적 순간을 담은 음반(예전에 BMG에서, 요즘엔 Aulos Media의 음반으로 구할 수 있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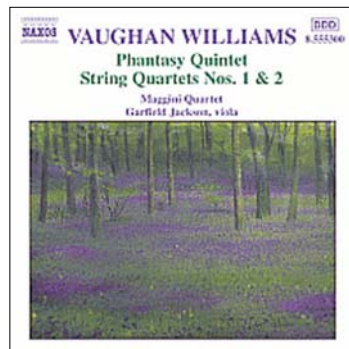
듣고 있으면, 12살의 귀여운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음악을 선사할 수 있었는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그저 불가사의한 어떤 사건처럼 느껴진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키신은 재능이 좀 있는 어린 아이 음악가를 좀 과장된 용어로 특별하게 부르던 ‘신동’이란 용어에 엄격한 제한을 뒀아한다는 사실까지 함께 일깨워줬다. 20세기를 살아온 우리의 머리 속에서 키신 같은 신동 피아니스트를 찾아낼 수 있을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실패하리라! 한국에 처음 오는 천재 피아니스트 키신. 2006년 4월은 내내 키신이 조성한 열기 속에서 보내야 할 것 같다. 감동에 휩싸인 사람들은 그 유명한 12살 소년의 쇼팽음반을 더 많이 찾을 것이다. 확실히 그 음반은 당시 12살 소년이 이미 완결된 테크닉, 악곡을 긴밀한 유기적 통합체로 만들어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 기교와 연주자란 말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상상력과 서정성 및 음악적 깊이까지 모두 갖춘 진정한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 이 기념비적인 실황 기록에 대해서 뜨겁게 박수를 보냈던 한 음악필자의 감탄을 옮겨와 본다. “키신은 놀라운 테크닉을 가진 피아니스트이다. 12살의 어린 소년은 그 당시에 이미 피아니스트로서 갖춰야 할 테크닉을 모두 갖췄다. 느린 음악을 연주할 때 그의 손가락은 마치 긴 다

리를 가진 계가 뒤흔뒤흔 걷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손가락을 통해 흘러나온 음악은 매우 정확하고 매혹적이다. 빠른 음악에 돌입하면 그 손가락은 건반 위를 유령처럼 휙휙 지나며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난해한 기교의 패시지라도 키신은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갖고 놀 듯 쉽게 처리한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다이내믹이 많기 때문에, 쇼팽음악의 왼손 파트를 온전하게 연주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웬만큼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것이 아니면 쇼팽의 왼손 음형들에서 뚜렷한 개성적 표현을 기대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꼬마 키신은 강력한 힘과 속달된 신경으로 쇼팽 음악이 요구하는 모든 왼손 음표들을 당당한 개성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결과 오른손 음형과의 조화도 완벽하게 성취해낸다. 리듬에는 불꽃이 튀고, 멜로디는 한껏 고양되어 있으며, 프레이징은 자유로움이 넘쳐나고, 조성이 바뀌는 부분은 이 음매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다. 놀라운 힘과 기교를 바탕으로 한 그런 균형 잡힌 연주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연주자라도 쉽사리 성취해내기 힘든 것이다.” (이성일, 음반 내지에서 옮김)

이 시대 최고의 영국 음악 전문 현악 사중주단

마기니 사중주단 The Maggini Quartet

Laurence Jackson(Violin I), David Angel(Violin II)
Martin Outram(Viola), Michal Kaznowski(Cello)



2001년 그라모폰 상에 빛나는
본 윌리엄스의 실내악곡 음반

로런스 잭슨(제1바이올린), 데이비드 애인절(제2바이올린), 마틴 아웃람(비올라), 미칼 카즈노프스키(첼로)로 구성된 마기니 사중주단은 1988년에 창단된 영국의 현악 사중주단이다. 악단명은 이탈리아 브레시아의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인 조반니 파올로 마기니(Giovanni Paolo Maggini)의 이름을 딴 것이다. 얼마 전 까지도 신예 실내악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 것 같지만, 창단된 지 20년이 넘었고, 현재는 세계 유수의 실내악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지명도가 높아졌다. 그들의 왕성한 연주활동과 음반발매 덕분이다. 마기니는 유럽과 미 대륙 그리고 극동지방에까지 연주회장을 찾았고, 나소스를 통해서도 팔목할만한 일련의 음반들로 애호가들을 사로잡았다.

마기니 사중주단은 한마디로 말해 영국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명성을 쌓은 실내악단이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2001년 그라모폰상 실내악 부문에서 본 윌리엄스의 현악 사중주와 환상 오중주곡을 담은 음반(8.555300)으로 나소스의 이름을 빛내준 사실이다. 엘가의 현악 사중주와 피아노 오중주곡(피아노 연주: 피터 도노호)을 수록한 음반(8.553737)으로는 1997년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반상인 디아파종 황금상을 받았다. 마기니 사중주단은 브리튼이 쓴 현악 사중주 모두를 두 장의 CD에 담아놓기도 했는데(8.553883, 8.554360), 이 음반들 역시 디아파종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두 번째 음반은 그라모폰과 클래식 CD의 편집장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또 월턴의 현악 사중주와 피아노 오중주곡(피아노: 피터 도노호)을 담은

음반(8.554646)은 그라모폰, BBC뮤직 매거진에서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되었고, 영국 작곡가 아놀드 박스의 현악사중주 1,2번을 담은 CD(8.555282)는 2002년 칸 클래식 상을 수상했다. 나소스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블리스의 음반(8.557108)은 2004년 그래미상 후보로 올랐다.

이들의 뛰어난 연주력을 높이 산 작곡가들은 심혈을 기울여 쓴 자신의 작품들의 초연을 맡기곤 했다. 로버트 심슨의 마지막 작품인 첼로 오중주는 1996년에 영국 첼튼엄(Cheltenham) 국제 페스티벌에서 마기니 사중주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같은 해엔 록산나 파누프니크의 <올리비아> 역시 마기니 사중주단이 초연했다. 1998년 마기니 사중주단이 10주년을 맞아 초연해준 음악으로 기억할 만 것은 제임스 맥밀란의 두 번째 사중주곡이었다. 런던 위그모어홀에서의 초연이었다. 위그모어홀 공연 이후에도 마기니 사중주단은 맥밀란의 곡을 북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자주 연주했다.

마기니 사중주단은 작곡가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와 흥미로운 제휴를 하기도 했다. 그들의 협력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데이비스의 '나소스 사중주곡' 10곡을 마기니 사중주단이 연주하고 녹음했다는 사실이다. 작품의 이름은 나소스가 의뢰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작곡가의 실내악 레퍼토리에 대한 긴 세월의 공헌과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라모폰은 이 나소스 현악 사중주 1번과 2번을 담은 음반(8.557396)을 '에디터스 초이스'에 등극시키고 높이 칭찬했다. 아쉬움과 기대를 반반씩 하게 만드는 것은 마기니 사중주단이 지금까지 주로 영국 작곡가들의 작품들만을 고집해왔다는 사실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대중적 명곡들을 마기니의 높은 수준의 연주로 감상하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마기니 사중주단(Maggini Quartet) 디스코그래피



BAX :
STRING QUARTET NO. 3
LYRICAL INTERLUDE
Naxos 8.555953



BAX :
STRING QUARTETS NOS. 1 AND 2
Naxos 8.555282



BLISS :
CLARINET QUINTET
STRING QUARTET NO. 2
Naxos 8.557394



BLISS :
OBOE QUINTET / PIANO QUARTET
VIOLA SONATA
Naxos 8.555931



BLISS :
STRING QUARTETS / CONVERSATIONS
Naxos 8.557108



BRIDGE :
PHANTASIE QUARTET / NOVELLETEN
Naxos 8.553718



BRIDGE :
PHANTASY
STRING QUARTETS NOS. 2 AND 4
Naxos 8.557283



BRIDGE :
STRING QUARTETS NOS. 1 AND 3
Naxos 8.557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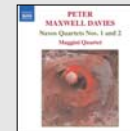
BRITTEN :
STRING QUARTETS NO. 3
SIMPLE SYMPHONY
Naxos 8.554360



BRITTEN :
STRING QUARTETS NOS. 1 AND 2
THREE DIVERTIMENTI
Naxos 8.553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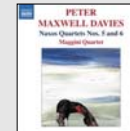
ELGAR :
STRING QUARTET IN E MAJOR
PIANO QUINTET IN A MINOR
Naxos 8.553737



MAXWELL DAVIES :
NAXOS QUARTETS NOS. 1 AND 2
Naxos 8.557396



MAXWELL DAVIES :
NAXOS QUARTETS NOS. 3 AND 4
Naxos 8.557397



MAXWELL DAVIES :
NAXOS QUARTETS NOS. 5 & 6
Naxos 8.557398



MOERAN :
STRING QUARTETS / STRING TRIO
Naxos 8.554079



VAUGHAN WILLIAMS :
PHANTASY QUINTET
STRING QUARTETS NOS. 1-2
Naxos 8.555300



WALTON :
STRING QUARTET / PIANO QUARTET
Naxos 8.554646



스칸디나비아의 '노래하는 여류 시인'

카리 브렘네스 Kari Bremnes



카리 브렘네스, 노르웨이 최고의 레이블 히르켈리히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자부심이다. 그녀는 노르웨이 음악에 관한 한 현재 가장 강력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뛰어난 재능의 시인이자 가수다. 매우 감각적인 음성은 그녀의 특별한 조건이다. 묘하게 마음을 끄는 힘이 있는 그 독특한 음성으로 그녀는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음악은 한번 반짝 하고 흘러가는 유행가류와는 차원이 다르다. 언제나 최고의 감성과 지성을 절묘하게 접목한 차원 높은 예술적 시각으로 작품을 쓰고 노래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음악들은, 방대한 포크 재즈의 영향이 다분하다. 유머와 아이러니 같은 요소를 적절히 잘 섞어 음악 듣는 즐거움을 배가시키며, 무엇보다도 멜랑콜릭한 서정과 따스한 분위기는 정말 압권이다. 히르켈리히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만큼 음반도 적지 않다. 한 장 두 장 구입하다가 결국 모두 사게 되는 음반이 바로 그녀의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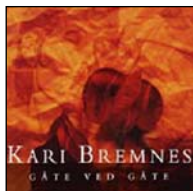
카리 브렘네스의 발매 음반들...



FXCD 87

KARI BREMNES : BLA KRUKKE

카리 브렘네스의 감성과 인생 경험에 대한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며, 특히 이 앨범에 수록된 가사는 모두 그녀가 창작한 것이다.



FXCD 143

KARI BREMNES: GATE VED GATE

실력과 관록을 함께 겸비한 카리 브렘네스의 94년작.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그녀의 보컬에선 세월의 향기가 느껴진다. 시류의 흐름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는 카리 브렘네스의 고급스런 음악이 담겨있다.



FXCD 156

KARI BREMNES : ERINDRING

카리 브렘네스의 노래에서는 삶의 여유가 느껴진다. 95년도에 발표된 베스트 음반으로 카리 브렘네스가 걸어 온 음악행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한곡, 한 곡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륜의 향기가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타이틀곡 〈Erindring〉에서는 '회망'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FXCD 123

KARI BREMNES: LOSRIVELSE

노르웨이가 배출한 세계적인 화가 몽크의 작품들을 주제로 한 이색음반. 몽크 스스로 써놓은 시에 역시, 노르웨이가 낳은 세계적인 건반악기 연주자 케틸 비외른스타가 곡을 만들고, 카리 브렘네스가 노래한 앨범으로, 재즈, 클래식, 록음악의 경계를 넘나든 걸작앨범이다.



FXCD 180

KARI BREMNES : MANESTEIN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정규 7집 음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음악에서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느낄 수 있으며, 재즈, 포크의 퓨전을 통해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전한다. 따스한 차 한잔과 함께 하면 더욱 좋은 앨범. 베티 미들러의 곡을 리메이크한 〈Rose〉는 그녀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최상의 트랙이다.



FXCD 71

KARI BREMNES : MITT VILLE HJERTE

1987년도에 노르웨이 그래미상을 수여한 앨범으로 덴마크의 시인 다들레센의 텍스트에 곡을 부쳐 노래한 작품이다. 6번째 트랙 'Erindring'은 이미 한국 음악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FXCD 221

KARI BREMNES : NORWEGIAN MOOD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싱어 송 라이터 카리 브렘네스의 세계시장 데뷔작. 각각의 곡들에서 느껴지는 뛰어난 작곡실력도 돋보이지만, 재즈, 포크, 록 등 다양한 음악을 편안하면서도 무리 없이 소화해낸 카리 브렘네스의 재능이 더욱 빛난다. 어쿠스틱 악기들의 편안한 울림과 촉촉한 보컬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앨범. *KKV 판매 차트 1위



FXCD 110

KARI BREMNES : SPOR

카리 브렘네스의 초기 작품집으로 1991년 그래미 노르웨이를 수상한 매우 아름다운 음반이다.



FXCD 200

KARI BREMNES: SVARTA BJORN

북유럽의 서정을 카리 브렘네스만의 분위기로 구성되어 발매한 앨범. 노르웨이 전래되는 음악으로 많은 아티스트에 의해 재구성되어 불려졌던 5번 'Byssan Lull'이 카리 브렘네스에 의해 녹음되어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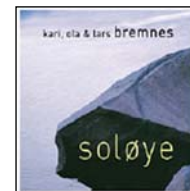


FXCD 258

KARI BREMNES : YOU'D HAVE TO BE HERE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전역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Norwegian Mood(2000)"에 이은 두 번째 세계 시장 공략 앨범. 카리 브렘네스는 이번 음반의 11곡 중 2곡만 빼고 전곡을 직접 작곡 작사하는 전제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록곡 대부분이 서정적인 발라드로 카리 브렘네스 특유의 우수어린 보컬은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까지 여운을 남긴다.

*추천곡 : #1, #2 외 전곡 영어앨범



FXCD 232

KARI BREMNES : SOL YE

카리 브렘네스와 그녀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앨범. 수록곡 모두 브렘네스 남매의 자작곡들이며, 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맘껏 펼쳐 보인 수작이다. 존 덴버를 듣는 듯한 첫째 곡 〈A kune æ skrive〉과 12번 곡 〈Finne veia〉에는 노르웨이 시골 정취가 풍기는 듯하여, 매우 정겹기까지 하다.

강력 추천



FXCD 293

KARI BREMNES : 도시 너머로

노르웨이 가수 특유의 부드럽고 감각적인 미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스칸디나비아의 '노래하는 여류 시인' 카리 브렘네스가 내놓은 사랑스런 앨범. 가수이자 노래 작곡가인 그녀는 이 앨범에서도 자신이 직접 모든 음악을 썼고 시 수준의 가사까지도 만들었다. 이 앨범에서 그녀의 노래는 이전 음반보다 기교적인 면이나 음악적 감각 면에서 한층 더 성숙해졌다.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로 구성된 그녀의 밴드는 새벽안개처럼 혹은 저녁의 노을처럼 깔리는 감미로운 노래들을 완벽하게 반주한다. 무심코 그녀의 음반을 집어 들었다가 완전히 매료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음반도 그럴 것이다. 한 곡 한 곡이 시를 읊는 것 같고, 그윽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로 가득하다.



TDK DVD



TDK DVWW-CONYC6V

2006년 베니스 페니체 오페라 극장 신년음악회

거장 쿠르트 마주어와 유럽 오페라계의 세 젊은 기대주가 펼쳐는 화려한 무대
2003년 12월 베니스의 페니체 오페라극장은 불사조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잿더미 위에서 다시금 부활하였다. 재개관 이후 매년 초하루 이 화려한 극장에서 펼쳐지는 신년음악회는 빈 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클래식 음악계의 성대한 음악축제의 한 마당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06년의 신년음악회를 수록한 것이다. 빈 필의 신년음악회가 그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왈츠들로 장식되는 것처럼, 페니체 극장의 신년음악회는 이탈리아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국의 오페라들이 중심이 된다. 본 공연에서는 베르디, 푸치니, 그리고 도니체티의 유명 아리아 및 합창곡들과 더불어, 올해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모차르트의 오페라 단편들을 무대에 올렸다. 다시금 건강을 회복한 거장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봉을 잡았고, 1996년 파바로티 콩쿠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피오렌차 체돌린스, 실력과 바리톤 로베르토 스칸두치, 그리고 유럽 오페라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몰타 출신의 신예테너 조셉 칼레야가 참여하였다.



TDK DVWW-BLNOT

롤랑 프티의 발레 <노트르담 드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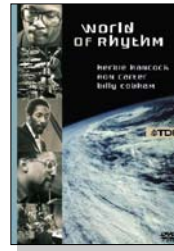
프랑스 문화계의 역량을 응집해 놓은 화려한 무대
뮤지컬의 큰 성공과 더불어 다시금 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무용가 롤랑 프티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꼽추 콰지모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한 편의 멋진 모던발레극으로 승화시켰다. 프티는 1965년 자신이 객원안무가로 있던 파리 오페라 발레단을 위해 이 작품을 준비하였고, 프랑스 영화음악계의 대부인 모리스 자르에게 음악을 맡겼다. 바로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사랑과 영혼', '죽은 시인의 사회' 등의 주옥같은 명화들의 음악들로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친숙한 이름이다. 본 영상물은 1996년 파리 국립 오페라에서의 공연을 옮긴 것으로, 이자벨 게랭(에스메랄다), 니콜라 르 리쉬(콰지모도), 로랑 일레르(프롤로 주교), 마누엘 그그리(베뷔스)라는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또한 화려한 원색으로 무대를 수놓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의 의상들 역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TDK DVWW-OPPEM

드뷔시의 오페라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차가운 설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뷔시의 몽환적인 드라마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는 드뷔시가 남긴 유일한 오페라이자, 20세기 벽두에 서구 음악계의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희대의 문제작이다. 메테를링크의 상징주의 무대극에 기초한 이 5막 오페라는 드뷔시가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으로, 자신이 존경해마지않던 바그너의 음악극을 인상주의로 대표되는 자신의 독특한 음악언어로 재창조한 것이었다. 가공의 중세왕국 아르몽드의 왕자 골로와 의문의 여인 멜리장드, 그리고 이들 사이에 끼여든 골로의 이복동생 펠리아스. 이들의 엇갈린 애증과 그에 따른 비극을 그린 이 오페라는 신비하고 상징적인 극의 내용만큼이나 몽환적이고도 탐미적인 음악서법으로 구성되었다. 본 영상물은 2004년 취리히 오페라극장의 프로덕션을 수록한 것으로, 현대오페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 왔던 독일연출가 스벤 에릭 베호토포가 연출을 맡았다. 그는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순백의 설국을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미묘한 심리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로드니 질프리, 이사벨 레이, 코르벨리아 갈리쉬, 미카엘 볼레 등의 일급 성악가들의 열연과 필리피스트의 정교한 지휘가 공연의 완성도를 배가시켰다.



TDK DVWW-JWOR

허비 행콕, 론 카터, 빌리 코백 : World Of Rhythm

허비 행콕, 론 카터, 빌리 코백 세 거장의 눈부신 솔로를 기록한 화려한 영상물
피아니스트 허비 행콕, 베이시스트 론 카터, 드러머 빌리 코백! 1982년 1월 26일 스위스 루가노에서는 좀처럼 같이 연주할 기회가 없었던 세 거장이 한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다분히 프로젝트성 이루어진 이날의 공연은 트리 오의 앙상블보다는 개개인의 화려한 솔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빌리 코백은 기존의 화려한 드럼 세트를 축소한 대신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징과 심벌을 활용한 퍼커션을 추가하였으며 허비 행콕은 공연 중 의도적 프리페어드 피아노 연주를 선보인다. 론 카터 역시 그 특유의 섬세한 멜로디 라인이 돋보이는 목직하면서도 화려한 베이스 라인을 들려준다. 특히 각기 솔로로 연주한 'Willow Weep For Me' (베이스) 'Dolphin Dance' (피아노) 'It's Treasure' (드럼)는 소리로서는 결코 재울 수 없는, 영상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 거장의 위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OPUS ARTE

BBC / Opus Arte DVD

Opus Arte의 중가DVD 시리즈 Faveo

구미의 최신 공연실태를 하이퀄리티의 DVD로 선보여온 오퍼스 아르테에서
과거 LD나 TV 소스를 DVD로 옮긴 중간 시리즈 파베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4편은 모두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공연을 옮긴 것으로 그동안 유럽 문화신진국들에 뒤지지 않는 이 나라의 풍성한 음악적 잠재력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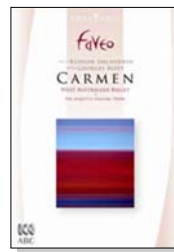
❖ Opus Arte의 중가DVD 시리즈 Faveo ❖



BBC/Opus Arte
OAF4001D

길버트 & 설리반 : 미카도

가상의 일본 도시 티티푸에서 벌어지는 흥겨운 사랑이야기.
대본작가 길버트와 작곡가 설리반의 협동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던 일련의 오페레타들은 19세기말 영국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 가상의 일본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았던 이국적인 2막 오페레타 <미카도>이다. 길버트와 설리번의 흥겨운 오페레타들은 이후 빈 오페레타를 거쳐 오늘날의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계승 발전되어왔다. <미카도> 역시 당시 대중들의 취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희극적인 내용, 유쾌한 춤과 합창, 친근하고도 경쾌한 선율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1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시각에서도 여전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희극 오페라의 걸작으로 남아있다. 본 영상물은 1987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공연을 옮긴 것이다. 연출가 버지니아 린스텐은 가부키를 연상케 하는 의상과 분장, 도자기를 색다르게 활용한 이국적인 무대를 통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가수들은 능수능란한 코믹 연기로 작품의 희극적인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다.



BBC/Opus Arte
OAF4002

쉐드린-비제 : 발레 <카르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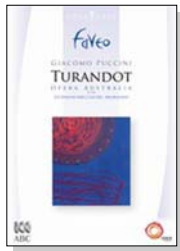
관능적인 몸짓으로 표현된 카르멘의 뜨거운 열정
비제의 걸작 오페라 <카르멘>은 많은 후배 음악가들의 창조적 영감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바이올린의 명수 사라 사테의 <카르멘환상곡>과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 구소련의 작곡가 로디온 쉐드린이 현악오케스트라와 타악기앙상블을 위해 편곡한 <카르멘모음곡>이다. 이 모음곡은 작곡가의 아내이자 소련 발레계의 거물이었던 발레리나 마야 플리세츠키야를 위해 완성한 발레용 작품으로, 모두 15곡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르멘이 뿜어내는 관능적인 열정은 발레를 통해 한층 매력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본 영상물은 2002년 퍼스의 히스 마제스티스 시어터의 무대에 올랐던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발레단의 공연을 담은 것으로 카르멘, 돈 호세, 에스카미요, 미카엘라 네 사람 사이에서 펼쳐지는 애증의 드라마를 모뎀한 감각으로 그려나간다. 호주의 발레계가 자랑하는 인도출신의 발레리나 베나지르 후사인이 타이틀 롤을 고혹적으로 연기하였다.



BBC/Opus Arte
OAF4003D

칠레아 :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레지어로의 여왕 조안 서덜랜드, 그녀를 영상으로 만나다.
4막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는 이탈리아 작곡가 칠레아를 대표하는 걸작이다. 1902년 밀라노에서 초연된 이 오페라는 18세기 초 코메디 프랑세스의 히로인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실존 여배우 아드리안느 르쿠브뢰르의 실재이야기를 토대로 완성한 작품이다. 아드리아나와 작센 선거후의 서자 모리츠(극중 이름은 마우리치오), 그리고 부이용 공작부인 사이에서 벌어진 삼각스캔들과 그에 따른 아드리안느의 죽음의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이며, 1막에서 라신의 비극 〈바자제〉를 준비하는 극단의 무대뒷모습이나, 3막에 등장하는 그리스신화 속의 파리스와 세 여신의 이야기를 다룬 무용극 등이 색다른 볼거리를 안겨주기도 한다. 1984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공연을 옮긴 본 영상물에서는 20세기 가장 위대했던 레지어로-콜로라투라 가수였던 조안 서덜랜드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아드리아나는 바로 서덜랜드가 즐겨 불렀던 배역. 전성기를 지난 시절의 공연임에도 그의 노련한 가창과 연기는 전혀 녹슬지 않았음을 지켜볼 수 있다. 남편 리처드 보닝이 지휘를 맡았다.



BBC/Opus Arte
OAF4004D

푸치니 : 투란도트

그레임 머피가 연출한 그로테스크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무대
중국을 배경으로 얼음처럼 냉혹한 공주인 투란도트와 폐망한 타타르의 왕자 칼라프 사이의 목숨을 건 사랑의 드라마를 담은 푸치니의 유작 오페라 〈투란도트〉.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울지 마라, 류’, ‘들어주세요, 주인님’ 등의 주옥같은 아리아들과 이국적인 선율, 웅장한 합창, 핑,팡,퐁 세 사람이 펼치는 감초연기, 화려한 무대 등등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이다. 본 영상물은 1991년 멜버른의 빅토리안 아트센터에서의 공연을 옮긴 것으로, 일급 오페라 극장들에서 투란도트 전문 소프라노로 활약했던 얼린 보스와 영국의 중견 테너 케네스 콜린스가 주역을 맡았다. 호주가 자랑하는 발레리노 출신의 안무가인 그레임 머피가 연출을 맡았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상징적이면서도 간결한 무대장치 위에서 적절한 소품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신비로운 이국적인 분위기를 대단히 사실적으로 표현해내었다. 또한 핑,팡,퐁이나 군중들이 보여주는 우아한 연기동선에서는 안무가로서의 감각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광대한 무대나 휘황찬란한 무대장치들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완성도 높은 연출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 이어서 출시될 Faveo 시리즈 ❖

BBC/Opus Arte
OAF4005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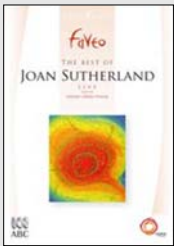
Gluck :
Orpheus et
Eurydice

BBC/Opus Arte
OAF4006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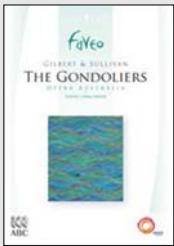
Massenet :
Manon

BBC/Opus Arte
OAF4007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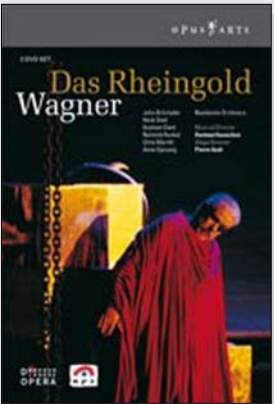
The Best of
Joan
Sutherland

BBC/Opus Arte
OAF4008D



Gilbert &
Sullivan :
The Gondoliers

... 반지 공연사의 굵직한 일획을 그었던 피에르 오디의 네덜란드 오페라 프로덕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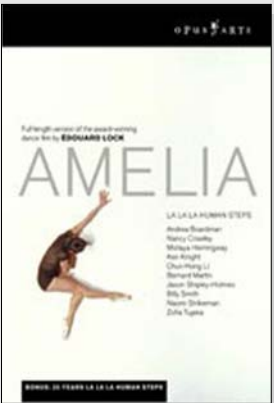


BBC/Opus Arte
OA 0946

바그너 : 라인의 황금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은 모든 오페라 극장들이 자신들만의 개성적인 프로덕션을 통해서 정복하길 원하는 오페라계의 궁극의 도전 과제이다. 오프스 아르테는 네덜란드 오페라의 1999년 프로덕션 전체를 차례로 DVD로 발매할 계획이다. 이 프로덕션은 유럽의 일급 오페라 연출가로 맹활약중인 피에르 오디가 연출을 맡았고, 코폴라 감독의 영화 ‘드라쿨라’로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했던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에이코 이시오카가 의상을, 국내에서도 펼쳐졌던 마린스키 프로덕션의 미술을 맡았던 조카가 조지 티시핀이 무대미술을 맡았다. (단순화되었던 내한공연 당시의 무대와 전혀 다른 SF적인 느낌의 스펙터클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독일출신의 지휘자 하르트무트 헨헨이 지휘봉을 잡았고, 헤이그 레지던트 오케스트라가 박력 넘치는 관현악 반주를 들려준다. (네덜란드의 일급 오케스트라 4팀이 4부작의 한 편씩을 나누어 맡았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베이스 바리톤 욘 브뢰헨레르의 보탄을 비롯, 그레이엄 클락, 안네 예방 등의 일급 바그너가수들이 열연을 펼친다. 캐스트 갤러리, 일러스트레이티드 시놉시스, 제작과정에 관한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부록으로 제공된다.

... 수많은 상을 휩쓸었던 현대 무용 최대 걸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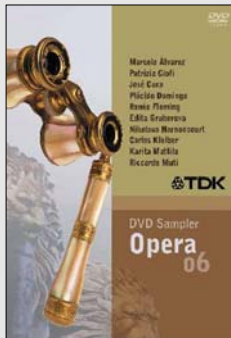


BBC/Opus Arte
OA 0945D

라 라 라 휴먼 스텝스 현대무용극 〈아멜리아〉

안무 : 에두아르 로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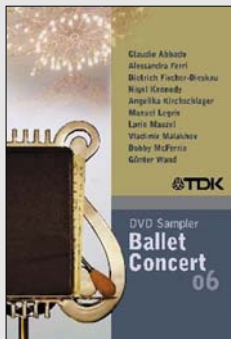
2002년 프라하에서 처음 무대에 올려졌고, 로마의 아르헨티나 극장에서 매진사례를 보이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그리고 결국 수많은 상을 휩쓸었던 ‘라 라 라 휴먼 스텝스’의 현대무용 최고의 걸작 〈아멜리아〉를 이제 안방에서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라 라 라 휴먼 스텝스’는 1980년 에두아르 로크가 창단한 캐나다 무용단. 스펙셜 피쳐에는 그의 약단 25년간에 관한 귀한 해설이 담겼다. 시종 빛이 공중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어둠침침한 무대에는 무용수들이 흥분된 스텝을 보여준다. 예기치 않게 아주 부드럽고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고, 적절한 순간에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목소리가 가세하여 정서를 리드하고 호소하는데, 단순한 무대에 매우 드라마틱하고 독특한 분위기가 흐른다. 현대 무용에 관심이 있는 애호가들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아이템이다. 138분



TDK DVWW-OPSMPL3

2006년 DVD 오페라 샘플러

- *비제 : 카르멘 Prelude
- *마스네 : 마농 "Je marche sur tous les chemins"
- *베르디 : 시몬 보카네그라 "Orfanella il tetto umile"
- *발리니 : 청교도 "Vien, diletto, e in ciel la luna!"
- *메토벤 : 피델리오 "O Gott! Welch ein Augenblick!"
- *베르디 : 포스카리가의 두 사람 "Questa dunque e l' iniqua mercede"
- *모차르트 : 마술피리 "O Isis und Osiris, welche Wonne!"
- *R 슈트라우스 : 카프리치오 "Der Strom der Tone trug mich fort"
- *베르디 : 가면무도회 "Forse la soglia attinse ... Ma se m' e forza perderti"
- *모차르트 : 돈조반니 "Don Giovanni, a cenar teco m' invitasti"
- *푸치니 : 라보엠 "Che gelida manina!"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박쥐 Polka: Unter Donner und Blitz
- *마스네 : 베르테르 "Je vous écris de ma petite chambre"
- *베버 : 마탄의 사수 "Milch des Mondes fiel aufs Kraut!"
- *베르디 : 일 트로바트레 "Condotta ell' era in ceppi"
- *로시니 : 모세와 파라오 "Des cieux ou tu resides"
- *도니제티 :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Mad scene (cadence)
- *차이코프스키 : 예브게니 오네긴 Polonaise
- *베르디 : 백베스 "Pieta, rispetto, amore"
- *오펜바흐 : 호프만의 이야기 "Voila quelle fut l' histoire"
- *헨델 : 세르세 "Ombra mai fu"
- *R 슈트라우스 : 낙소스의 아리아드네 "Ein Augenblick ist wenig"
- *발리니 : 몽유병의 여인 "Ah! non credea mirarti"
- *모차르트 : 피가로의 결혼 "Cosa sento! Tosto andate"
- *푸치니 : 투란도트 "Tu che di gel sei cinta"
- *푸치니 : 마농레스코 "Oh, saro la piu bella!"
- *베르디 : 라 트라비아타 "Prendi, quest' e l' imagine"



TDK DVWW-COSMPL3

2006년 DVD 발레/콘서트 샘플러

- *로시니 : 세빌라의 이발사 Sinfonia
- *모차르트 : 피가로의 결혼 "Voi, che sapete che sosa e amor"
- *비발디 : 사계 중 봄 II. Largo & III. Allegro (Vivaldi)
- *JS 바흐 : 마태수난곡 "Erbarme dich"
- *바비 맥퍼린 : Improvisation
- *말러 : 교향곡 2번 '부활' IV Urlicht, Sehr feierlich, aber schlicht
- *푸치니 : 라보엠 "Quando men vo"
- *브루크너 : 교향곡 8번 III. Adagio (excerpt)
- *슈베르트 : 겨울나그네 Der Wegweiser
- *리스트 : Oh! Quand je dors
- *미국영가 : You can tell the world (Traditional, arr. by Margaret Bonds)
- *코른골트 : Die tote Stadt "Gluck, das mir verblieb" (Korngold)
- *아이브스 : Memories
- *메사저 : L' Amour masque J' ai deux amants (Messenger)
- *슈베르트 : Erkonig
- *말러 : Frühlingsmorgen
- *코릴리아노 : Mr. Tambourine Man: Postlude Forever young
- *차이코프스키 : 호두까기 인형 March: Arrival of the guests
- *마스네 : 마농
- *차이코프스키 : 백조의 호수 Pas de deux: Odile & Siegfried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박쥐 Pas de deux
- *아파트먼트 - Pas de deux : The kitchen
- *아리드 : 클라비고 Entrance of Clavigo - Clavigo's advances
- *들리브 : 실비아 The shepherd
- *슈나이츠회퍼 : 실피드 James seeks the Sylph - James and the Sylph
- *프로코피예프 : 폭군 이반 The battle with the invaders

연광철, 그가 노래하는 레포렐로를 만나다!

모차르트 | 돈 조반니

보이텍 드라보비치(돈 조반니) | 연광철(레포렐로) | 레지나 쇠르크(돈나 안나)
베로니크 장(돈나 엘비라) | 마르셀 레이얀스(돈 오타비오) | 아나톨리 코르체가(기사장) | 마리스 마르탄스(체를리나)
펠리페 보우(마제토) | 베르트랑 드 비이(지휘) |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베이스 연광철,
현존 최고의 모차르트 히로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로니크 장,
슬라브 베이스의 적통을 잇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세계적인 베이스 아나톨리 코르체가의 돈 조반니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8,800개 음반 / 130,000 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 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컨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 CD Quality (64K)

시험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영상으로 남겨진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불꽃들 Günter Wand Edition Part II

NDR 심포니 오케스트라 | 귄터 반트

1990, 1995, 1997, 1999년 슬레스비히-홀스타인 페스티벌 실황



DVD I

Bruckner: Symphony No.4
Beethoven: Overture <Leonore 3>

DVD II

Schubert: Symphony No.8 & No.9

DVD III

Schubert: Symphony No.5
Brahms: Symphony No.1

DVD IV

Bruckner: Symphony No.7

DVWW-COWANBOX2(4DVDs)

2002년 2월 14일 90세의 일기로 사망한 20세기 마지막 독일거장 귄터 반트.
노쇠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연히 불타올랐던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이 송고한 영상물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지사진 : 진현주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6년 3월호
통권 제 10호 발행 : 2006년 3월 24일
발행인 : 임용득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usic.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